



꼭 감은 두눈... '아줌마'는 강했다

칼바람이 뽕뽕 불어대던 지난 16일 담양에 있는 육군 황금박쥐부대에는 여성들의 고함소리가 쾅쾅 울려 퍼졌습니다. 왜 여성들이냐고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동계 특전캠프에 대한민국의 든든한 힘 '아줌마'들을 포함해 192명의 민간인이 참여해 공수지상훈련과 기초 유격 등 특전 훈련을 받았답니다. 젊은 남성들도 힘들어 한다는 '헬기레벨 훈련'에 임하고 있는 주부의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인간이 가장 공포심을 느낀다는 11m 높이에서 로프만 의지한 채 허공에 매달려 있는 이의 심정을 어찌 상상이나 하겠습니까만은 꼭 감은 주부의 두 눈에서 긴박한 심정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눈을 감아버리기는 했지만 합체 구호를 외치는 모습에서는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훈련에 참가한 주부들은 이날 영하 5도가 훌쩍 넘는 강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아버지를 못지 않은 용기를 선보여 칭찬 박수를 받았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머니는 무엇이든 적척 다 해내실 것 같은 '수퍼우먼'같은 든든한 존재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주위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떤 훈련도 두렵지 않겠지요? '충성!' /4명기자 mjna@kwangju.co.kr

리빙 센스

파와 마늘 보관하기

요리의 맛을 완성하는데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마늘과 파. 고유의 맛과 향을 유지하면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파
물기를 빼서 신문지 등에 말아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끝 부분이 누렇게 변하고 시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잘 씻은 후 일정 크기로 잘라 냉동실에 보관해두면 요리할 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늘
마늘은 일일이 다져서 쓰면 번거롭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졌다가 냉동고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비닐 팩에 다진 마늘을 넣어 담아두었다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늘이 얼어있어서 일정분량씩 꺼내다가가 힘들다. 이때 칸칸이 나누어져 있는 초콜릿이 상자를 사용해보세요. 칸 칸에 한 번 사용량 분량씩 넣어서 보관하면 편리합니다.

I love MY student



이순희

칭찬 릴레이 '악동'들이 변했어요

해도 개별적으로 물어오는 아이들, 정말 정신이 없는 하루였다. 실상가상으로 5명의 악동은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다. 한마디도 지지 않고 반항적으로 꼬박꼬박 말대답하는 승현이, "승기야, 복도에서는 조용히 걸어다녀야지" 하는 말에 "알았어요, 알았더니깐요"하며 대드는 승기, 잠시도 가만있지를 못하고 친구들을 건드려 싸움을 일으키는 치호, 민규, 다윈이. 정말 지옥 같은 일주일이었다. 뭔가 새로운 생활 지도방법이 필요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나도 아이들에게는 매일 칭찬을 해주 보리라' 다음날, 변화를 위한 첫 번째 대상으로 승기를 지목하였다. 발표하는 자세를 지도하다가 우리 반 모두가 들도록 "야~, 승기 자세가 바르네!" "글씨를 참 바르게 썼구나!" 라고 칭찬했다. 우쭐해 하며 부끄러워하던 승기의 얼굴을 보자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기뻐다. 그리고 3월 한 달 동안

은 당번을 정하지 않고 스스로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아이들에게 청소를 부탁하였다. 민규와 다윈이가 남아 청소봉사를 하겠다고 날, "민규와 다윈이가 도와주니까 선생님이 훨씬 힘이 덜 드는구나! 고맙다" 다음 날도 다음날도 민규와 다윈이는 남아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하였고 나는 어김없이 홈페이지 우리 반 알림장과 친구 칭찬시간에 칭찬을 해 주었다. 나의 진심이 통한 것일까? 처음엔 친구 칭찬하기가 어색하지만 하였는데, 매일 아침 학급 모임 시간에 진행하는 친구 칭찬하기 코너는 인기 만점이 되었다.

이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자랐다는 생각이 든다. 수업시간에 자기의 의견을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아이들, 선생님께 함께하지 않아도 맡은 구역을 청소를 잘하는 아이들, 늘 먼저 봉사하겠다고 나서는 아이들, 읽었던 책을 소개하기 위해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생각을 말하는 아이들. 교사의 칭찬과 친구의 칭

찬을 먹고 자란 우리 반 아이들의 자신감 있는 모습에 가슴 뿌듯함을 느낀다. 우리 반 32명의 아이들과 매일 아침 책임감 운동도 하였다. 7차 교육과정에서 중요시한 창의성은 꼭 넓은 독서가 바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먼저 책을 읽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에서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책을 3권씩 가져오게 하여 학급문고를 만들었다. 그리고 매일 아침 20분씩 책을 읽었다.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나 새로 알게 된 점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색지에 적어 게시판에 부착하도록 하였다. 또 매일 아침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운영하여 글쓰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 또 다른 독후활동도 시도해 보았다. 학기 초 같이 생각지도 못했던 독서와 독후활동이 가능했던 건 많은 칭찬을 먹고 자란 자신감 때문이라.

21세기에는 도덕적인 인성을 갖추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고 한다. 미래의 주인공인 32명의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품성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나길 바란다. <삼창초등학교 교사>

3년 전 1학년 아이들과 행복했던 시간이 그리워 저학년들을 희망해 맡게 된 2학년 1반 32명의 악동.

1학년 선생님들께서 무척이나 힘들어하셨던 아이들이나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였다. 하지만 '내가 사랑으로 대한다면 아이들도 달라지리라, 그래도 맑고 순수한 꼬마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3월 2일 교실에 첫발을 들여놓았다.

나를 쳐다보는 아이들의 기대감에 찬 눈망울은 나를 설레게 하였지만 첫날 똑같은 이야기를 3번씩 설명하게 하는 아이들, 설명하고 또 설명

제5회 KBC사자놀이 무서운 노림수 3보(25~48)

초등 최강부 결승전

白 양문영 (비야초등 6) 黑 김영환 (금주초등 6)

이때 백 26으로 끊은 것은 당연하다. 이때 김영환군은 살짝하게 흑 27, 29로 몰아 35까지 위쪽 흑 모양을 키우는 정도로 만족했는데 27로는 '참고도2'의 흑 1로 늘 수도 있었다. 그러면 백은 2로 늘게 되고 외길수순을 거쳐 9까지가 예상되는데 이것이 한 판의 바둑이다.

수순도백 쪽 32로 끊어둔 수는 얼핏 납득하기 힘든 수다. 그러나 이 수가 무서운 노림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후에 밝혀지게 된다. 한참 후에 슬그머니 갈라친 백 48이 김영환군이 간과하고 있는 흑머리였는데...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이세돌 삼성화재배 첫 승

이세돌이 먼저 웃었다. 이세돌 9단은 21일 서울시 을지로 삼성화재 본사 특별대국실서 열린 제12회 삼성화재배 세계바둑오픈 결승3경기 1국에서 박영훈 9단을 262수 끝에 4집반으로 따돌렸다. 이로써 결승 전적 1-0으로 앞서 23, 24일에 있을 2-3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조반 박영훈의 두터운 포석에 고전하던 이세돌은 중반 실리를 바탕으로 상변과 좌변을 과감히 침투하며 상대 세력을 무력화시켰다.

이번 대회는 제한시간 각 2시간, 60초 초읽기 5회이며 상금은 우승 2억원 준우승 5천만원이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2일(음 12월 15일 辛酉)

36년생 신사원하는 절대로 불가할 수다. 48년생 호랑이에게 물린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60년생 미운사람과 화해하면 내 사람이 된다. 72년생 협력자는 나타나나 큰 도움은 못준다. 84년생 미운사람이 아담하며 내편으로 들어온다. 행운의 숫자: 21, 25

37년생 주변이 도와서 가정이 훌쩍으로 바뀐다. 49년생 마무리가 좋을 수다. 61년생 매사를 심사숙고하고 변통하면서 무리하지 마라. 73년생 잔고 끝에 약속한다. 85년생 가내 병고 송사 시비 크히 조심해야 할 수다. 행운의 숫자: 14, 38

38년생 신사를 모색해서 오후부터는 혁신적인 변화가 있다. 50년생 대개는 대승하니 의심 없이 추구하라. 62년생 내일을 기하고 욕심을 줄여야 할 관이다. 74년생 친구의 도움이 절실하니 옛 정을 되살려라. 행운의 숫자: 05, 26

39년생 아내의 건강에 유념하라. 51년생 사기에 말려들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이다. 63년생 천지가 방해하지 않는 한 길 할 수다. 75년생 자기발전을 기할 수 있는 진로를 발견한 형상이 된다. 행운의 숫자: 01, 35

40년생 財帛 破와 官骸를 불러오니 아는 길도 물어가라. 52년생 희망이 문전에 있고 의외의 협조자가 나타난다. 64년생 모든 일이 순해하며 행운을 얻을 것이다. 76년생 일마다 피땀하고 범사가 불리하다. 행운의 숫자: 17, 29

41년생 지난 일이 괴롭지만 좋은 일로 연결된다. 53년생 좋은 뜻한 연결이 불끈스런 나타난다. 65년생 異性에 호사만 남고 부부설정이 예상된다. 77년생 귀인의 도움이 있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어간다. 행운의 숫자: 03, 45

42년생 오후부터는 제 페이스를 찾는다. 54년생 급전거래에는 대한 신심이 필요하다. 66년생 아랫사람만 잘 다스리면 만사가 형통한다. 78년생 재물로 일고를 감수해야하고 더욱 심하면 본정이 발생한다. 행운의 숫자: 18, 32

43년생 미끄러운 내리막길에서 놀랄 일이 다발한다. 55년생 자기노선을 찾았으나 급전하면 불발한다. 67년생 주변과 유대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79년생 급전거래에 시비가 나타날 수가 있다. 행운의 숫자: 04, 42

44년생 아는 도가에 발들 찍힐 운로니 정신 빼와 차려야 할 것이다. 56년생 부단스런 하루이니 조심하라. 68년생 희망한 하루가 된다. 80년생 애인이 생각되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행운의 숫자: 09, 36

45년생 재복과 여복이 자레하지만 중생을 지키라. 57년생 욕심을 버리면 득은 있다. 69년생 어떠한 새로운 일에도 끼여들지 마라. 81년생 주변에서 합당한 피어오 말려들지 마라. 행운의 숫자: 07, 40

46년생 확장하면 百戰百勝하니 내일을 기하면 이득이 있을 수다. 58년생 과욕하면 할말이 따른다. 70년생 음악이 교제하니 신중을 잃지 마라. 82년생 신용도가 높아지니 신사에 적극 참여해도 무리가 없다. 행운의 숫자: 06, 28

47년생 타인과 구실수는 본인의 잘못이다. 59년생大吉이 표현된 것은 아니지만 희망한 진행이 가속된다. 71년생 일일비하나 결과는 안정권으로 진행할 수다. 83년생 내조자 協助를 만나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02, 43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p>굿모닝 잉글리쉬 <1081></p> <p>What's going on? 무슨 일이야?</p> <p>A: Mary Ann, this is John. B: Hi, what's going on? A: Well, I was wondering if you would like to go out with me this Friday. B: I'd love to.</p> <p>A: 안녕, 메리. 나, 존이야. B: 안녕, 잘 있지? 웬일이야? A: 응, 너, 나하고 이번 금요일에 밖에 나갈래? B: 나야 좋지 뭐.</p> <p>* wondering : 궁금한, 알고 싶은 * go out : 외출하다 * 이번 주말, 혹시 너한테 무슨 일 있니? = I was wondering if you were doing anything this weekend.</p> <p><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p>	<p>오하오우 니혼고 <1081></p> <p>もっとやらせてください。 더 시켜 주세요.</p> <p>A: 嚴(きび)しい練習(れんしゅう)をいやがる選手(せんしゅ)はいませんか。 B: 練習が辛(つら)いと言(い)う者(もの)もたまにありますが、段(だんだん)慣(な)れてくると面白(おもしろ)がって「もっとやらせてください」と言(い)うようになります。 A: そうですね。色(いろ)いろいろお話(はな)しを聞(き)かせていただいて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p> <p>A: 엄한 연습을 싫어하는 선수는 없습니까? B: 연습이 힘들다고 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만, 점점 익숙해지면 재미있어 하며 "더 시켜 주세요."라고 말하게 됩니다. A: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 주셔서 정말 감사 합니다.</p> <p>嚴(きび)しい: 엄하다, 엄격하다 辛(つら)い: 괴롭다, 쓰라리다 面白(おもしろ)がる: 재미있어 하다 段(だんだん): 점점, 차차</p> <p><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v ☎ 228-2545</p>	<p>니하오 쑹구위 <58></p> <p>你坐过火车吗? 너 기차 타 본 적 있어?</p> <p>A: 你坐过火车吗? Nǐ zuò guò huǒchē ma? 너 쑹취 후취 후취 마? B: 坐过。 zuò guò 쑹취 후취. A: 你坐过几次火车? Nǐ zuò guò jǐ cì huǒchē? 너 쑹취 후취 지 쑹취 후취? B: 坐过很多次 zuò guò hěn duō cì. 쑹취 후취 쑹취 후취 후취. A: 너 기차 타 본 적 있어? B: 타 봤어. A: 몇 번 타 봤는대? B: 여러번 다 봤지.</p> <p>坐 [zuò] [거좌동/타다] 火车 [huǒchē] 기차 几 [jǐ] 몇</p> <p><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 383-1605</p>	<p>한자 이야기 <698></p> <p>話頭(화두) 말씀 화, 머리 두</p> <p>화두(話頭)는 글자 그대로 풀면 이야기의 말머리라는 뜻이다. 불교에서 이 말을 부처님과 스님들의 말씀이나 행동, 문답으로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질에 대한 의구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 이전에는 관공서에서 어떤 공문서의 문안을 작성할 때 그 문안의 첫머리에 붙이는 제목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선종(禪宗)에서 이 말을 활용하여 제자들에게 일상하게 하는 외마디의 한 구절을 '화두'라고 지칭한 이후,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처음의 주제, 화제가 되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issue)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p> <p>불교에서 화두라는 용어는 당나라 초기 달마대사를 통한 남종선(南宗禪)이 번성하면서 마음을 깨우치는데 필요한 제자와 스승 사이, 또는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 사이의 질문과 답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선종(禪宗)에서는 이것을 고칙(古則) 또는 공안(公案)이라고도 한다. 원래 공안도 공부안록(公府案牘)이라는 말로, 정부에서 확정한 법률안으로 국민이 준수해야 할 사안(事案)이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선거에서는 옛부터 조사(祖師)들이 정한 설(設)·언구(言句)·문답 등 불조(佛祖)와 인연 된 종강(宗綱)을 수록한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고, 선(禪)의 과제로 삼아 인연화두(因緣話頭)라고도 한다.</p> <p><한예원(韓藝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p>
---	---	--	---